문맥상 ⓐ～ⓔ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

① ⓐ: 그는 신문 기사를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.

② ⓑ: 아이가 한눈을 팔다가 친구와 부딪혔다.

③ ⓒ: 그가 사용한 전문 용어들은 너무 어렵다.

④ ⓓ: 열심히 장사했더니 이익이 많이 남았다.

⑤ ⓔ: 언니가 화분들을 모두 베란다에 내놓았다.